



한국은행, 2012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발표

김혜란 연구원

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‘2012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’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하방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음.

-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영향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¹⁾가 높은 신흥경제국으로 파급되면서 2011년보다 회복세가 약화되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 3%대 후반에서 2012년에는 3%대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세계경제는 ①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 ②미국 재정을 둘러싼 정쟁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③중국경제의 경착륙 ④신흥경제국에서의 지속적인 자본유출 ⑤국제유가 불안과 같은 하방 리스크를 안고 있음.

〈표 1〉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

리스크	내용
①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	•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유로지역 정상들의 합의 및 ECB 유동성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, 일부 회원국내 반발 등으로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가 심화될 가능성
② 미국 재정을 둘러싼 정쟁심화에 따른 경기둔화	• 기존 경기부양정책 연장여부, 재정적자 감축방안 등을 둘러싼 민주·공화 양당 간 정쟁 심화가 경기회복세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③ 중국경제의 경착륙	• 2011년 하반기 이후 국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증가세 약화, 부동산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가중되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우려
④ 신흥경제국에서의 지속적인 자본유출 가능성	•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신흥경제국에서 자금이 기초적으로 유출될 우려
⑤ 국제유가 불안	•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충격으로 세계경기 회복이 저해될 우려

1) 중국 45.3%, 브라질 34.6%, 인도 31.4%, 러시아 55.7%(2010년, 미국·EU·일본 기준).

■ 본 보고서는 각 리스크에 대하여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지속, 미국 양당간 입장차이 해소 어려움 및 국제유가 단기 급등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신흥경제국에서의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.

- 유로지역 채무위기 역내 전염 가능성, 은행부문 신용경색 심화 가능성, 실물경기 둔화 등이 상호작용하여 국가채무위기는 심화와 일시적 개선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.
- 미국은 2012년에는 대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양당 간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정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하방리스크로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정치권이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존재함.
- 2012년 중 국제유가는 10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란 등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.
- 중국경제의 경착륙 및 신흥경제국에서의 지속적인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확고한 내수확대 추진방침과 신흥경제국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.

(한국은행 보고서, 12/29)